

한국의 세대 연구 동향과 기독교적 적용

김선일*

논문초록

최근 한국에서는 세대를 이해하고 세대 간의 갈등을 줄이려는 이론적 대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세대의 문제는 한국 사회의 갈등과 미래적 전망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적 문화변혁의 사명과 연관 지어 볼 때, 매우 중요한 쟁점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최근 한국의 세대론에 대한 이론들을 조망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기독교적 연구의 방향을 타진해보는 것이다. 먼저, 세대론에 대한 이해, 또한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적인 측면에서 전개된 세대연구들을 파악한 다음,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 미국의 세대이해가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또한 세대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적용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세대론적 연구는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 발휘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직접적인 자료연구로 나아갈 수 있다.

핵심주제어: 세대, 라이프스타일, 문화, 문화선교, 한국사회

* 학원복음화협의회 캠퍼스사역 연구소장

- I. 서론
- II. 기존의 세대 연구에 대한 개관
- III. 한국의 세대 분석 동향
- IV. 기독교적 세대 연구의 몇 가지 모델
- V. 결론

I. 서론

현대사회는 급속도로 다원화되면서, 연령과 세대에 따라 문화적 성향이나 도덕적 가치가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일한 시대를 산다고 해서 비슷한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에 따른 혹은 역사적 경험에 따른 다른 삶의 양태를 보이고 있다.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의 문제는 사회적 통합과 조정을 위한 주된 관심사이다. 우리 사회는 30여 년 전부터 기성세대와는 삶의 양식과 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나는 청년문화에 대한 분석들이 등장했고, 신세대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1990년대에는 신세대에 관한 담론이 형성했다. 세대 문제가 가장 극적으로 표출된 것은 2002년 2-30대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은 후보가 기성세대 다수의 기대와는 달리 대통령에 선출되면서였다. 이즈음 한국사회를 이끄는 새로운 권력으로서 젊은 세대에 대한 연구가 또 다시 힘을 얻게 되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의 권위에 대하여 갖는 급속적인 거부감은 많은 우려를 만들어냈으며, 거꾸로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에 대한 불온한 눈길을 보내곤 했다. 이러한 세대 간의 갈등은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자주 지적되었다.¹⁾

1) 2001년 10월 11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유니세프에서 벌인 설문조사에서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이 한국이라고 한다. 어른세대를 존경하는냐는 질문에 한국의 청소년들은 존경한다는 대답(48%)보다 존경하지 않는다(52%)

따라서 세대 간의 이해와 조정은 미래 한국 사회를 견인해 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이러한 세대 간의 문제와 갈등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과 대응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문화변혁의 사명(창1:28), 복음전파의 사명(마28:19)과 더불어, 그들이 자리 잡은 세상의 평화를 추구할 의무가 있다(렘29:7).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의 갈등이 큰 쟁점이고 시급히 풀어야 할 숙제라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진지하게 담론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또한 세대 연구는 기독교 내부를 위해서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 세대 문화들은 비교적 활발한 담론을 형성해왔고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루어왔다. 그리고 세대 사회학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들을 토대로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교회의 주된 사역, 즉 선교적 사명과 교회의 갱신 과제들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로 삼아왔다. 각 세대 문화의 차별적 특성에 관한 이해가 형성되면 이를 위한 기독교적 담론을 상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이는 한국교회가 한국사회에 책임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제로 세대연구를 삼아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물론 한국사회에서도 세대연구는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세대 연구가 언론의 단기적인 전망이나 광고회사의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간 영혼의 변화와 성장을 목표로 삼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이를 수용하는 데에는 분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대 문화에 관한 주요 연구들의 주장과 특성을 소개하며 기독교적 담론 형성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실례로서, 미국에서 세대연구와 기독교적 담론의 연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고찰을 통하

가 더 높게 나왔는데, 이는 이웃나라인 홍콩의 88%와 중국의 91%에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며 한국 기독교 학계에서 학제 간 세대 문화 연구의 전망과 방향성을 타진해 보고자 한다. 이는 기존 세대연구의 어느 특정 쟁점에 대한 심층 연구를 수행하려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기존 연구와는 다른 별도의 기독교적인 세대구분을 확정지으려는 시도는 더욱욱 아니다. 다만 기독교적 범주에서 일반적 세대연구를 위한 서술적(descriptive)이며 제안적(suggestive) 성격으로 본 논문을 전개하고자 한다.

II. 기존의 세대 연구에 대한 개관

1. 세대 연구의 역사

돌이켜보건대, 세대 연구라는 주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세대의 차이와 특징에 대해서 주목하고자 했던 시도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관심사가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은 최근의 일이긴 하지만,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한국 현대사에서 세대적 담론이 부침해왔던 모습을 간략히 살펴보자.

가. 청년문화의 정체성

서구사회에서 일어난 X세대 현상에 편승하여, 신세대라는 용어가 한국사회에 유행처럼 번진 것은 불과 12-3년 남짓하다. 그러나 이미 1970년대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새로운 청년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접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언론매체에서는 통기타와 청바지, 생맥주로 상징되는 청년문화를 집중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응하여 대학가에서 청년문화를 가법계 다름에 대한 반론들이 제기되었다. 결국 이는 청년문화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졌는데, 먼저 청년문화를 정신적인 자세, 즉 기존질서에 대한 대학가의 저항성과 반문화 운동으로 보았던 남재희와 한완상의 주장이 한 축을 이루었

다. 그 반면 소설가 최인호와 김병익은 청년문화를 엘리트나 대학문화가 아닌 동시대의 청년들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생활 습관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였다(박재홍, 2005: 21-22).

비록 70년대에 많은 대학생들이 즐기던 통기타, 블루스, 생맥주 등이 자유로운 청년문화의 현상이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지만, 당대의 대학가에서는 이러한 수용적 입장에 대하여 오히려 비판적인 성향을 띠어왔다. 이는 1970년대를 휩쓸던 유신독재와 억압적 사회현실에 대한 반감이 지배적이던 대학가에서 자유로운 문화코드에 대한 지나친 예찬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볼 수 있다(박재홍, 2005: 24). 아무튼 당시의 이러한 논쟁은 더욱 더 학술적인 담론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유신체제가 공고해지면서 수그러드는 현상을 보였다.

나. 신세대담론의 출발

한국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매우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인 것은 아마도 1990년대 신세대 논쟁의 활성화를 통해서 일 것이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대학가와 젊은이들은 반독재투쟁과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와 삶의 양식을 차별적으로 규정할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관심의 이동이 문화어로 옮겨지게 되었고, 권위주의 체제가 쇠퇴하면서 사람들은 개인, 내지는 좀 더 소규모의 구분된 집단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1993년부터 새로운 장르의 음악과 춤이 선보이면서 새로운 취향의 세대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1990년대는 특별히 20세 전후의 젊은 세대가 자기 자신을 이전과는 뚜렷하게 다른 양상으로 표현하기 시작한 시대이다. '신세대'뿐 아니라, 캐나다의 소설가 더글러스 쿠프랜드(Douglas Coupland)의 소설 『X세대』가 소개되면서 'X세대'라는 용어도 도입되었다. X세대라는 구분은 다분히 당시의 경제적 성장을 경험하며 자란 젊은이들의 소비주의와 대학 엘리트문화를 결합시켜 놓은 것이었다. 게다가, 국내 민간 기업에서는 20세부터 25세 사이의 젊은이들

을 가리키는 용어로 '이오세대'를 내걸고 동명의 화장품까지 선보였다(강준만, 1997:82-88)²⁾. 특징이 있다면 서구의 수입 용어였던 'X세대'와 '이오세대'라는 용어는 사회적 공감을 얻은 담론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젊은이들을 기성세대와는 총체적으로 다른 존재로 보는 '신인류'라는 단어까지 심심치 않게 등장했지만, 지속성 있는 담론으로는 발전할 수 없었다. 그 뒤로도 한국의 젊은 세대를 가리키는 용어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고 중립적인 의미의 '신세대'로 통칭되었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다.

다만 90년대 신세대 담론에 주목할 만한 특징이라면, 이 시대의 신세대 논쟁이 정서적 문화적 혁신성을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당시의 신세대 문화는 한국사회의 도덕적 엄숙주의와 형식적 사회규범에 대한 비판적 전위부대로 등장했다. 그들은 "자유, 사랑, 열정, 광기, 섹스, 저항의 감성을 공유하는 문화변혁 운동의 주체로 자리매김"된 것이었다(박재홍, 2005: 29). 이는 '오렌지족'이라는 퇴폐적 향락주의라는 어두운 그들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사회의 경직성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신세대 문화의 대표적인 아이콘을 들자면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이었고, 『신세대: 네 멋대로 해라』(현실문화연구, 1993)와 같은 책들은 매우 직설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신세대들의 전위문화를 예찬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1990년대는 신세대 담론이 문화적으로 승화된 시대였던 것이다.

비록 90년대의 신세대 담론은 70년대와 비교할 때 한층 두터운 문화적, 감성적 충위를 형성하긴 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이나 대안을 찾지 못한 채 퇴조하는 양상을 띠어왔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1997년 대한민국 경제가 IMF 체제에 접어들면서 문화적 논의에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어지면서 더욱 두드러졌다. 또한 한국사회의 급속한 정보화로 인해서 세대 담론 자체가 인터넷이

2) 강준만은 여기서 광고업계가 '세대' 개념을 '상품화'시키는 문화 공학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질타한다. 결국 X세대니 이오세대니 하는 것도 가상개념일 뿐이라는 것이다. 감각주의, 책안읽기, 소비주의, 정치무관심은 특정세대의 특성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관계망 속에서 용해되는 양상으로 넘어간 것이다.

다. 21세기의 세대담론

21세기 한국사회의 정보화가 급격한 진전을 보이면서, 이제는 영상매체뿐 아니라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세대라는 의미에서 신세대는 N세대(Net-Generation)이라는 용어로 규정되기도 했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는 사회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게 된 386세대에 대한 연구와 논쟁이 언론지면을 통해서 활발하게 소개되었다(박재홍, 2005: 32). 그러나 세대 논쟁이 본격적인 의미에서 불거진 것은 2002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였다.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한 젊은이들의 월드컵 거리응원, 미군 장갑차 희생 여중생 추모 촛불집회, 그리고 그해 대통령 선거에서 ‘노사모’로 구성된 젊은이들의 전폭적인 노무현 후보 지지와 당선 등은 한국사회에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한 신세대의 성격에 대한 논쟁을 다시금 촉발시켰다.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우세하게 지지했던 후보가 20, 30대의 공조로 인하여 낙선됨으로 인해 상당히 큰 충격을 받기도 한다. 반면, 이전까지 신세대를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중심적인 세대라고 다소 평가절하했던 386세대의 지식인들은 그 당시 일련의 사건들로 나타난 젊은 세대의 당당하고 진취적인 공동체 정신에 대하여 생경해하며, 재평가를 하기에 이른다.³⁾

21세기에 공동체적 형태로 모습을 드러낸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는 앞서 안보논리에서 이탈하는 경향이 뚜렷했던 ‘탈냉전세대’에서 더 진전된 ‘월드컵세대’ 혹은 ‘신인류세대’라는 용어로 정의되기도 했다(이명진, 2005: 48). 뒤에서도 논의하겠지만, 2002년 이후로 세대 담론은 더 이상 주

3) 예를 들어, 2002년 대선이 끝난 뒤 2003년 1월 4일 서울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대선에서 나타난 젊은 세대의 결집력을 추적하기 위하여 “세상을 바꾸는 힘, 영 파워!”라는 제목의 내용을 방영한 바 있다. 이때 인터뷰에 응한 성공회대 정치학 교수인 김동춘은 한국의 젊은 신세대에 대한 기존의 분석이 해방이후 최초로 한국적 정체성과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세대라는 사실을 읽지 못했다고 술회한 바 있다.

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중반으로 구성되는 젊은이들의 문화와 심리를 연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세대 간의 차이와 극복으로 논의의 방향이 바뀌는 양상이다. 단순히 떠오르는 세대를 마케팅과 소비전략 차원에서 집중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부상하는 세대와 기성세대의 질서 사이에 어떠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며, 예상되는 갈등 지점과 미래의 방향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동세대 안에서 존재하는 비동시대성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연구되고 있다. 따라서 세대담론의 폭이 더욱 넓어지고 더욱 다양한 관점들이 도입됨으로써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

2. 세대연구의 방법론

가. 세대에 대한 접근

세대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정립은 무엇보다도 '세대 구분'일 것이다. 일단 세대라는 것 자체가 익숙한 용어이면서도 모호한 개념이고, 세대 현상은 복잡하게 펼쳐지기 때문이다(박재홍, 2005: 43). 또한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매우 급격한 근대화와 기존질서의 해체, 사회-정치적 불안 등을 거쳤기 때문에, 세대 문제와 같은 문화현상을 충분히 살펴 볼 여유가 없기도 했다. 세대를 이해하고 구분하는 우리의 방식은 어디에 기초해야 하는가? 세대라는 것이 단순히 연령에 기초한 생물학적 구분인가? 아니면, 복잡다단한 사회현상 속에서 느슨하게나마 세대를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접근 모델들이 있는가? 일단 세대 연구의 기본 틀은 대체로 일찍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 온 서구 사회과학계에서 형성된 틀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를 들어, 칼 만하이임(Karl Mannheim)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연령대를 기반으로 세대 문제를 논하게 되면 역사적 흐름에 있어서 존재하는 사회적 상호 관계와 같은 주요한 요인들을 설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세대는 역사적인 조건 아래서 "구성원들이 동일한 현상을 모두 경험하고 이에 총화된 의식을

공유한 공통적 위치”라는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다(이명진, 2005: 26). 이는 결국 세대가 일정한 시대에 운동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단순한 연령에 따른 분화를 넘어서 사회변동을 세대적 정체성과 문화를 가늠하는 주된 기준으로 삼는 것이기도 하다(박재홍, 2005: 49-50).

그러나 한편으로 사람은 연령에 따라, 그리고 사회를 경험하는 연륜에 따라 사고와 가치관, 습관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어느 시대에나 젊은 세대는 기성 질서에 대해 불만을 가진 반면, 기성세대는 젊은이들을 마땅치 않게 보는 것이 관례다. 원래 ‘세대’라는 말은 그리스어 ‘genos’에서 유래했으며, 이는 통상적으로 ‘새로운 존재의 출현’을 의미한 것이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출생, 재생산, 어떤 시대, 인생의 어떤 시절, 생애 주기 단계, 인종 등과 같이 다양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박재홍, 2005: 73). 이는 세대 개념을 좀더 명확하게 이해할 것을 요청한다.

나. 세대 개념

세대 개념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논의는 데이비드 커처(David Kertzer)에게서 4가지 형태로 언급된 바 있다. 이것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박재홍, 2005: 73-80; 이명진, 2005: 27-28). 첫째로, 가계 계승 원리가 되는 세대로서, 부모 세대 혹은 자녀 세대와 같이 친족계보에 따른 항렬로 구분하는 형태가 있다. 여기서는 조부모세대, 부모세대, 자녀세대 등의 세대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친족개념으로서의 세대는 만하임이 주장한 ‘역사적 경험의 공유’라는 측면이 약해짐으로써 사회의 역동적 변동을 주목하기 힘든 단점이 있다.

둘째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출생 코호트’(birth cohort)로서 세대라는 개념이다. 코호트라는 단어는 일정한 시기에 같은 사건을 경험하여 사고방식과 생활양식을 공유하는 집단을 의미하는데, 이는 역사적 사건과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일어나는 세대적 정체성과 가치관인 ‘코호트 효과’에 기초하고

있다. 아마도 386세대라는 개념은 이러한 코호트 효과에 가장 부합될 것이다.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생물학적 성숙 과정에 따른 차 이보다는 동일한 역사적 경험의 공유로 빚어지는 사회의식과 개인적 성향을 말하기 때문이다(이명진, 2005: 28). 386세대는 이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민 중에 대한 부채의식을 공유하는 세대라는 점에서 이러한 코호트 효과가 뚜렷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셋째로, 생애주기라는 세대 개념을 거론할 수 있다. 이를 해설하자면, “동 일한 생애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간 발달 과정에서 동일한 과제에 직면한 과제 동질적 집단”(이명진, 2005: 27)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청소년 세대, 대학생 세대 등과 같은 용어를 가리킨다(박재홍, 2005: 74). 이러한 집단은 동일한 생애주기를 경험하고 있기에 세대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

넷째로,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생존한 사람들도 세대 구분에 포함되기도 한다. 마치 6.25 동란 경험을 기준으로 전쟁세대와 전후세대가 나누어지는 것과 같다. 또한 1980년 5.18 민중항쟁을 직, 간접으로 경험한 사람들을 광주세대 라고 부를 때 해당되는 개념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성장기와 청년기에 경험했던 것이 인간의 의식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학자들은 코호트의 개념을 빌어서, 역사적 시기로서의 세대와 생애주기 단 계로서의 세대가 상당히 비슷한 의미를 공유한다고 보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단지, 연령에 따른 세대 구분만이 아닌, 사회-역사적 경험이 세대적 정체성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접근 모델이 된다는 것이다.

다. 인성에 의한 세대구분

위에서 간략하게 논의된 일반적인 세대 개념 외에도 세대를 특정한 정서적 경험과 행동양식에 의해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단순히 역사적인 경 험을 어떻게 했느냐보다, 일련의 역사적 경험들을 통해서 형성되고 습득된 공

통의 행동양식 및 마음의 습관. 총칭해서 특정한 '인성' 가치를 통해 세대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 한국 사회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경우에는, '위기'라는 인성적 특성을 중요한 잣대로 삼을 수 있다. 한경구는 해방이후 한국의 현대사가 크고 작은 위기의 발생으로 점철되어 왔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한국전쟁과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불안정성을 경험한 한국의 기성세대에게는 생애 가장 결정적 경험이 위기였으며, 전반적인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위기모드'를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발전과 민주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난 젊은이들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탈위기적 인성'을 갈수록 뚜렷하게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인성 중심의 문화적 특성에 기초해 세대를 파악하려는 접근은 역사적 시기로서의 세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특정한 사건의 공유보다는 그 사건과 일련의 다른 사건들이 형성해 놓은 어떠한 심리적 작동기제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세대의 구분 역시 상대적으로 큰 폭의 연령 집단을 문화적 인성으로 묶게 된다. 이러한 문화인류학적 가치를 중심으로 세대를 나누는 것은 다소 광범위한 연령대를 묶기는 하지만, 당대의 중요한 인성 코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세대를 너무 상세하게 구분하여 그 차이를 일일이 열거하기 보다는 역사적 흐름에 따른 큰 틀의 문화적 인성에 주목함으로써 일반적인 경향을 통해 더욱 많은 연령대를 이해하는 통합적 관점을 제시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라. 동일 세대의 문화지형: 세대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연령대나 역사적 시기에 따라 동질적인 성향이 있음을 미리 가정하지 않고, 동일한 세대에서도 전혀 다른 문화적 차이가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황상민이 행한 일련의 연구에서는 가치관과 행동방식의 차이는 반드시 세대나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경험하고 비슷한 생애 주기를 보이는 이들에게서도 상이한 라이프 스타일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세대 연구가 지닐 수 있는 "세대는 다르다"는 맹목적 가정을 교정시

켜주고, 수직적 세대 구분이 아닌 수평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문화의 지형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세대 간의 차이는 각 세대마다 어떠한 라이프 스타일이 우세하느냐의 문제이지, 획일적인 차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주며, 또한 각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인 변화도 엿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절하고 통합적 비전을 갖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III. 한국의 세대 분석 동향

세대를 구분하고 연구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다양한 접근들이 있다. 주제를 더욱 좁혀 한국의 세대들을 구분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도들이 나타났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한국의 세대 연구들은 크게 사회학적 접근, 인류학적 접근, 심리학적 접근이라는 양상을 띠어왔다. 전통적으로 사회학에서 사회변동에 대한 이해차원에서 세대연구를 주도해왔지만, 최근 문화인류학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세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틀이 제시된 것도 사실이다.

1. 사회학적 접근

‘세대 사회학’이라는 용어가 있을 만큼, 세대에 대한 연구들을 사회학계의 전유물과 같았다. 현대 우리 사회에 분포되어 있는 세대에 대한 이해들 역시 주로 사회학자들의 안목에 힘입고 있다. 이는 주로 한국사회의 사회적 변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는 접근이었다. 사회학자들이 제시하는 주요한 몇 가지 세대 구분의 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2030과 5060:

송호근은 2002년에 일어난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한국 사회에 엄연히 존재

하는 세대 간의 차이와 갈등을 수면 위로 부상시킨 사건으로 본다. 즉, 그는 이를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사이에 '마음속의 잣대'라는 가치관이 격렬하게 부딪힌 것으로 본다(송호근, 2003: 80). 그는 이러한 충돌을 한국 사회의 현대사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설명을 시도한다. 즉, 50대와 60대가 공유해온 성장 일변도의 국가주의, 성장주의, 권위주의를 거부하고 평등과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라는 코드를 공유하는 20대와 30대의 결속 대응으로 나타난 사회적 사건이 2002년 대선이었다. 이는 정치, 경제, 시민사회 영역 등에서 기성세대의 점진적 속도를 누르고 급속한 파급효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2030세대의 영향력이 확산된 것은 한국 전쟁 이후 급속한 인구 증가가 1960년부터 198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유권자수의 절반을 점유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은 베이비붐이라는 인구 증가시기에 포함되는데, 2002년 대선 당시 2030세대의 다수가 이 시기에 태어난 것이다. 1980년 이전까지는 5060세대가 그들의 사회적 경험을 농축해서 사회 분위기를 완전히 주도했던 기간이었지만, 1987년 이후 시민사회, 분배주의, 민주질서로의 이행이 더디어 지다가 2030세대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탄력을 얻게 되었으며 이러한 열망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것이 2002년 대선이었다(송호근, 2003: 108-109).

이러한 2030세대의 사회적 주도권 획득은 한국의 현대사 흐름 및 세계화의 추세와 궤적을 같이 하기 때문에, 송호근은 이를 단기적인 흐름으로 보기보다는 융합적인 성격을 지닐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즉, 5060세대도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새로운 환경과 역사적 경험에 동조할 것이기 때문에, 즉 경제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문화와 감성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사회 전체가 변하기 때문에 현재 2030세대의 세계관을 수용할 개연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송호근, 2003: 117-118). 따라서 송호근은 "한국사회의 미래는 2030세대의 확대재생산 과정을 밟아 갈 것으로 예상"(송호근, 2003: 119)한다. 특이한 점은, 40대는 이러한 양 세대 간의 충돌에서 어정쩡한 중립적 입장을 취했다는 점에서 뚜렷한 세대적 성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2002년 대선에서 아이러니하게도 40대가 캐스팅보트를 갖게 된다. 송호근은 이러한 분석을 이끌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의 공공선과 규범, 즉 '습속'(folklore)이 부재하는 현실을 매우 우려 깊게 진단한다. 더군다나, 전통적으로 현대사회에서 공동체 규범을 이끌어 온 종교와 전통적 도덕, 그리고 이념체계 등이 한국의 새로운 세대에게 더 이상 영향력을 주기 힘든 형편에서 공공선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 한다 (송호근, 2003: 126-131).

나. 386과 포스트386:

송호근은 세대연구에 대한 그의 후속 저서에서 본격적으로 2030세대의 두 주역이었던 386 세대와 포스트 386 세대의 차이를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2002년 대선을 분기점으로 386세대와 포스트 386 세대가 한국 사회의 역사적, 정치적 방향성에서는 공조를 취했다면, 이 두 세대가 향유하는 라이프스타일과 가치관에서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특별히 노무현 정권이 출범한 지 2년이 지난 뒤 드러난 여론조사에 근거해서, 송호근은 현대 한국사회의 대표적인 개혁 세대인 386세대이 매우 불안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대체로 개혁과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실험이 한국 역사에서 실패로 끝났음을 꼬집는다(송호근, 2005: 176). 한국의 386 세대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경험을 기반으로 민주화운동과 시민운동의 길잡이 역할을 하며 급성장하게 만들었지만, 포스트 386세대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색, 감각의 교호작용, 자아의 리노베이팅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386세대의 거시 담론과 광장 지향적 집단주체를 거부하고 감각, 멋, 취향을 주된 관심으로 삼는 자아 중심적 세계관을 배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앞선 세대와 단절이 또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송호근, 2005: 197).

이러한 2030세대 내부에서 일어나는 차이와 균열이 더욱 점증할 경우, 한국 사회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실제로, 386세대

와 포스트 386 세대 간의 차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송호근의 조사 결과 드러난다.

〈표1〉을 통해 양 세대를 비교해볼 때, 386세대는 급속하게 기성질서로 편입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정치적인지성 성향도 오히려 386이전 세대와 더욱 더 닮아가고 있다. 물론 포스트 386세대도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정치적 지성성향이 쉽게 영향 받을 수 있다(송호근, 2005: 235-6). 그러나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정신적 원리로서 습속의 원천에 대한 입장 차이이다. 386세대가 중요하게 보는 논리적, 역사적, 이념적 성향에 비해, 이미지와 감성 중심의 포스트 386세대는 공동체의 규범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다른 경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표 1〉 386과 포스트386의 비교

쟁점사안	386(36-45세)	포스트 386(20-35세)
사회질서	조직지향, 집단주의, 성장	시장지향, 실용주의, 평등과 분배
직장과 일	기업헌신 및 팀워크	자아실현 우선, 놀이마당선호
인성	공익중심(가족, 이웃), 논리, 이념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감성, 느낌, 이미지
애국심	영토적 민족주의, 역사의식	느낌의 의기투합, 감성적 민족주의
문화코드	경험, 증거, 참여 (3E Experience, Evidence, Engagement)	공감, 상징, 감수성 (3S Sympathy, Symbol, Sentiment)

송호근은 포스트 386세대가 아무리 감성 중심적 세대라고 하나, 감성이란 주기가 짧아서 이성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송호근, 2005: 235). 그런 면에서, 포스트386세대에게 감성지향의 내면세계가 궁핍을 채워줄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의 미비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과제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젊은

세대들에게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의 양식을 공급해야 할 역할, 공익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줘야 할 책임 등이 현대 한국 사회에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세대 간의 다른 문화적 양상에 기초한 한국 사회의 과제를 인식하는 것은 기독교의 사회적 영향력 재고를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된다.

다. 포스트386내부의 세대구분:

현재의 신세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명진은 포스트 386이라는 단일 범주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탈냉전세대'와 '월드컵세대'로 세분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즉, 1970년부터 1978년까지 태어나서 현재 27세에서 35세의 연령층을 형성하며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유엔가입, 한중수교, IMF 경제위기' 등을 경험한 이들을 탈냉전 세대라고 부른다. 반면, 1979년부터 1985년 사이에 태어나서 20세에서 26세의 연령대를 이루고 있으며, 성장기에 한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정보화, 남북정상회담, 2002년 한일월드컵과 대통령선거를 경험한 세대를 월드컵 세대로 부르는 것이다(이명진, 2005: 48-50).

이명진은 포스트386을 이루는 두 세대 안에서도 386 세대와 다른 것처럼 약간씩 다른 사회의식과 가치관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이명진, 2005: 53-93). 가장 젊은 세대인 월드컵세대는 현재 한국 사회에 대한 신뢰도가 탈냉전세대나 386세대보다 더욱 높게 나타난다. 즉, 이들은 한국 사회의 전망을 밝게 본다. 또한 정치와 경제 문제에 관한한 역시 가장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월드컵세대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소득문제의 공정성에 관해서는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이들은 현실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 미래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과 가정에 관한 문제로 들어서면, 월드컵세대가 혼전 성관계나 동거 등에 대해서 가장 유연한 입장을 보이는 반면 이혼 문제에 관한 관용성에 있어서는 탈냉전 세대가 거부감이 덜한 편이다. 오히려 월드컵세대는 이혼 문제에 관한 좀 더 보수적인 성

향을 보이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이명진, 2005: 114).

위의 결과들을 비교해볼 때,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의 차별화된 사회의식 및 윤리의식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세대 간의 문화적 차이들은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선교적, 목회적 차원의 문제를 제기할 때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는 현안 쟁점들이었다. 이러한 세대 간의 사회적 변동을 이해하고 세상을 변혁하는 기독교인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하는 중차대한 과제가 주어지게 된다.

2. 인류학적 접근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세분화된 구분과 아울러 큰 흐름에 있어서 문화적 가치와 집단적 인성에 대한 논의 역시 매우 중요한 이론적 시간을 제공해준다. 한경구는 한국 현대사에서 역사적 사건이 구체적으로 우리 민족의 인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에 주목한다. 그는 모리시마 미치오가 『왜 일본은 몰락하는가』에서 사용한 방법을 응용하여 세대론적 접근을 시도한다(한경구, 2000: 136). 그는 사회의 위기를 인류학의 중요한 분석틀로 삼는다. 인간집단은 위기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발전시켜왔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관 형성기의 청소년들에게 위기를 경험한 것은 그들의 인성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현대사의 경우 전쟁이 가져온 위기를 경험하면서 위기상황에서 행동하는 방법을 보게 되고 또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한경구, 2000: 139). 특히, 한국 전쟁은 남쪽의 입장에서 볼 때 전선이 두 번이나 붕괴되는 끔찍한 경험이었으며 민간인 사상자가 그 어느 전쟁 못지않게 높은 전쟁이었다. 한경구는 한국전쟁이 심화시킨 위기인성을 이렇게 설명한다(한경구, 2000: 140).

첫째, 한국인의 삶의 동선이 변화하면서 피난과 군복무 등으로 지역공동체

를 떠나 생면부지의 사람들과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이게 되었다. 둘째, 전통적 생활방식이 붕괴하고 아울러 가족의 상실도 수반되었다. 셋째, 급격한 도시화로 열악한 시설과 불결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었다. 넷째, 성실한 사람은 무능력 해보이고, 착하고 올바르게 살면 탈락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즉,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든지 위기적 모드로 인생의 문제를 대응해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한경구는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의 위기모드에 기초한 문화적 행동방식을 이렇게 기술한다.

우선, 사람들은 효용보다는 효과에 더 비중을 둔다. 즉, 결과를 위해서 과정의 비합리성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매우 단기적이고 절박한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패배한다는 생각이 암암리에 조성되고,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불의한 파벌과 거래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한경구, 2000: 142-144). 한경구는 이러한 위기인성과 위기문화가 세대에 걸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하는데, 이를 직접위기인성세대, 간접위기인성세대, 그리고 탈위기인성세대라고 부른다. 이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표 2〉 위기 인성 세대

1949년까지 출생	직접 위기 인성 세대	한국전쟁, 3.15부정선거, 4.19, 5.16
1950~1979년 사이 출생	간접 위기 인성 세대	근대화, 유신, 광주 민주화 운동, 문민정부, 세계화
1980년 이후 출생	탈위기 인성 세대	IMF, 정권교체, 남북정상회담, 월드컵

위의 표를 보면, 위기적 모드가 세대에 따라 점점 약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간접 위기 인성 세대는 직접 한국 전쟁과 같은 위기적 사건들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부모 세대로부터 위기적 상황에 대한 학습을 받았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위기 모드로 삶이 조정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농후한 세대이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 위기 인성 세대와 탈위기 인성 세대 사이에 중재역할을 할 수도 있고, 과거와 같이 일반적으로 위기를 조장하는 정치선전이 통용되는 세대가 아니다. 그러므로 간접 위기 인성 세대가 한국 사회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위기 모드는 완만하게 약화될 수 있는 것이다. 탈위기 인성 세대가 한국 사회의 전면에 부상하고 다수가 되는 2020년쯤이면 한국 사회는 '위기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것으로 한경구는 전망한다(한경구, 2000: 148).

그러나 또 다른 전망도 가능하다. 최근과 같이 경제적 위기와 사회적 불안이 확산될 경우, 간접 위기 인성 세대는 위기감을 완전히 해소하기보다는 '불안인성'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새롭게 등장할 '탈위기 인성 세대'는 비록 3차 위기인성 세대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불안인성'을 소유할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것이다(한경구, 2005: 172).

비록 새로운 세대들이 갈수록 위기에 의한 설득에는 취약하지 않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구조도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한국사회가 고도의 경제성장이 종료되며 후기 자본주의 사회로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경기 침체의 지속 및 인구 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사람들의 유목민적 삶이 증대하고 다양화되면서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한경구, 2005: 184-186).⁴⁾

이러한 불안 심리의 확산은 한국사회가 긍정적 미래를 위해 해소해야 할 중요한 개념적 유형이다. 또한 한국 기독교계에서는 이러한 불안 세대의 부상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한 치유와 회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최근에 나타나는 신세대들의 중도 보수화 경향은 이러한 불안 심리의 확산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화일보 2006년 5월 12일자에서는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사회연구소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20대들의 정당선호도가 개혁적인 정당으로부터 뚜렷하게 이탈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마찬가지로, 헤럴드경제 2006년 5월 18일자 조사에서도 20대들의 진보적인 성향이 지난 1월의 36.3%에서 27.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난다.

3. 심리학적 접근

세대를 이해하는 것은 동일 세대 안에서 일어나는 라이프스타일의 차이, 즉 심리적 생활습관과 가치관의 차이를 파악하는 과제 또한 포함된다. 동일 세대의 비동시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세대 이해는 연령과 시기에 따른 환원주의적 접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있어서 황상민과 그의 연구 팀은 지난 몇 년간 중요한 결과를 공급해왔다.

〈표 3〉 한국의 라이프스타일과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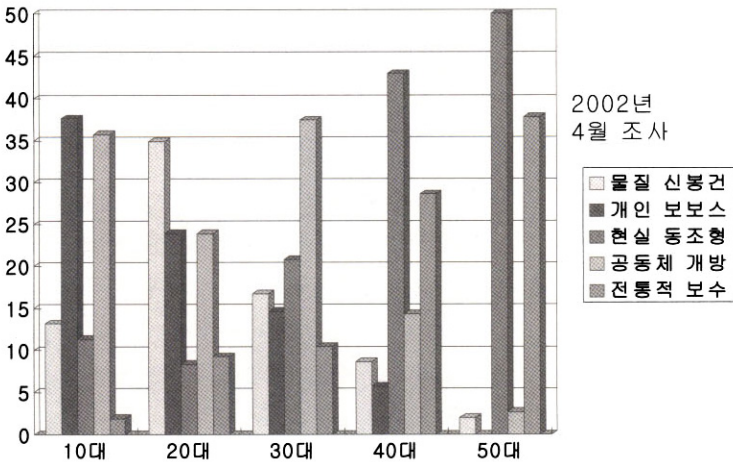
물질적 신봉건형	이들은 공공의 문제에 무관심하며, 집안, 학벌, 연줄, 성역할, 상하서열관계 등 전통 가치를 존중한다. 물질을 중시하며, 개인과 가족만의 행복을 추구한다.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이들에게는 자기 개성과 자기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타인은 경쟁상대일 뿐이다. 물질적 풍요와 사회적 인정은 둘 다 중요하며, 자신들의 전문성과 사회적 성공을 추구한다. 하지만 물질적 신봉건형과는 다르다.
현실적 동조형	이들은 어디에서도 사전을 드러내지 않으며, 개인 중심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집단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다. 눈치를 보며 대세를 따르는 유형으로, 중용을 비덕으로 알고 있다.
공동체적 개방형	이들은 강한개성을 갖고 있으나, 의기투합만 되면 나이, 성별, 지위를 초월하여 개방성을 발휘하고 공동체를 형성한다. 개인적 출세와 사회적 인정에 비중을 적게 둔다. 노사모가 대표적이다.
전통적 보수형	이들은 전통가치를 존중하며 사회문제에도 비판적 관심을 기울인다. 남성우월주의를 견지하며, 집단과 조직에 대한 희생과 의무를 당연시한다. 개방성과 관용은 부족하다.

그들은 89개 문항들로 구성된 설문조사를 통해 신세대의 동년배집단 내부에서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을 구분할 수 있는 8가지 대표적 요인들인, 1) 전통적 가족주의 2) 전통적 집단주의, 3) 개인주의, 4) 문화적 개방성, 5)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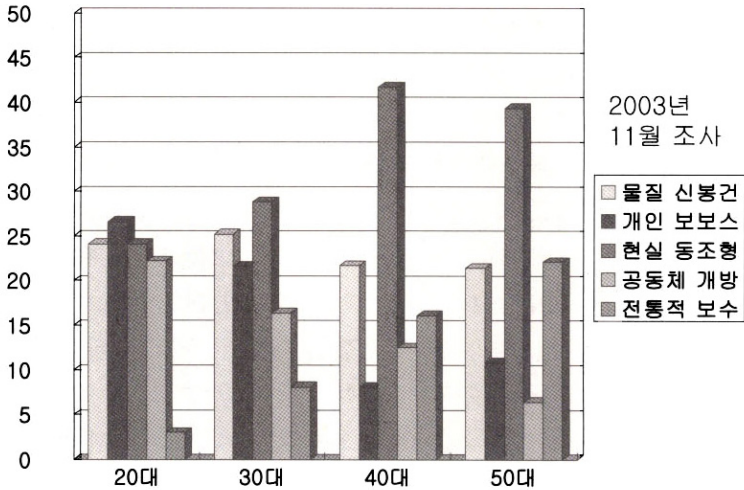
주의적 삶. 6) 사회의식, 7) 능력과 역할주의, 8) 전통 위계의식 등을 열거했다(황상민, 양진영, 2002). 이러한 요인들은 신세대들에게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삶의 유형들이었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을 토대로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라이프스타일 유형들인, 1) 물질주의적 봉건형, 2) 개인주의적 보보스형, 3) 현실적 추종형, 4) 동질주의적 개방형, 5) 전통주의적 보수형이라는 범주를 정립했다(황상민, 양진영, 강영주, 2003). 대학생과 젊은이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에 추출된 이러한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좀 더 확장시켜 전국 단위의 연구로 이끌고, 각 라이프스타일 유형을 연령별로 대입시켜 각 연령대마다 어떠한 라이프스타일들이 공존하는지를 밝혔다(황상민, 김도환, 2004).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또한 이들은 2002년 4월과 2003년 11월에 각 연령대별로 나타난 라이프스타일 분포도를 조사했는데, 흥미 있는 결과들이 도출되기도 했다.



<그림 1> 연령대별 라이프 스타일(2002, 4월)



〈그림 2〉연령대별 라이프 스타일(2003.11월)

위의 그림들을 보면, 20대들에게는 전통적 보수형은 거의 없거나 매우 미미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조사에서 물질적 신 봉건형과 개인주의 보보스형, 그리고 공동체적 개방형은 일관성 있게 비중 있는 수치로 나타났다. 현실 동조형은 2003년 11월 조사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상위 연령층으로 갈수록 현실 동조형이 매우 높게 치솟고 있으며, 전통적 보수형도 다소 높게 나타난다. 50대의 경우 2002년 4월 조사에서 개인주의 보보스 유형이 거의 안 나타났는데, 2003년 11월 조사에서 약 10% 가량의 수치로 등장한 것을 보면 한국 사회에 나타나는 가치관 변동의 양상을 보여준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앞서 송호근이 지적한 것처럼 세대 갈등의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사회 흐름에 맞추어 기성세대들도 변화될 움직임이 보이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대와 같은 젊은 세대들은 다른 세대와 공존할 수 없는 획일적이며 유독한 라이프스타일

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다원화된 가치관과 삶의 유형이 혼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세대 간의 소통과 교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주며 더욱 분별력 있는 기독교적 접근을 요청하게 된다.

4. 결론

본 논문은 지금까지 세대연구의 소개와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대에 대한 접근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본 논문이 의도하는 것은 단순히 서술적 소개가 아니라, 세대에 대한 기독교적 연구의 필요성과 모델을 개진하려는 것이다. 다만 아직 한국 사회에서 세대연구를 위한 기독교적 모델이 없기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예에서 지혜를 얻고자 한다. 특히, 미국의 종교 사회학적 연구 성과를 빌려서 한국의 상황에 접목하고자 한다.

IV. 기독교적 세대 연구의 몇 가지 모델

- 미국의 사례와 한국적 전망

최근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의 성장은 상당부분 인구학적, 세대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역으로 미국 기독교 지형의 변화는 일반 사회학이나 종교사회학 등지에서 주된 연구 소재가 되고 있다.⁵⁾ 미

5) 이와 관련된 연구를 밝히는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버지니아(Virginia) 대학의 제임스 헌터(James Hunter)와 브래드 윌콕(Brad Wilcox), 그리고 프린스턴(Princeton)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로버트 위쓰나우(Robert Wuthnow) 등이 활발하게 저술을 내고 있다. 또한 기독교의 성장과 회심을 사회학적 입장에서 분석하는 베일러(Baylor) 대학의 로드니 클락(Rodney Clark)도 의미 있는 연구들을 내놓고 있으며, 더욱 고전적인 인물로는 세속화 시대의 초월적 코드를 탐색한 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Berger) 등을 들 수 있다. 윌로우 크릭이나 새들백과 같은 '구도자 중심 교회'(Seeker Sensitive Churches)는 종교사회학에서 매우 흥미 있는 연구 자료가 되고 있다.

국 사회에서 세대에 대한 이해 모델과 아울러 이러한 세대문화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종교사회학적 연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봄으로, 한국 사회에서 세대문화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다.

1. 미국의 세대구분

미국에 현존하는 세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한다. 건축가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베이비버스터, 혹은 X세대, N세대 등이 나온다. 이러한 세대 구분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연구는 윌리엄 스트라우스(William Strauss)와 닐 하우(Neil Howe)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 두 사람은 1991년에 행한 연구에서, 현존하는 미국 내 세대들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었다(Strauss & Howe, 1991). 첫째로, 1901년에서 1924년에 태어난 세대들을 'G.I. (Government Issue: 미국 군인을 가리키는 관용어) 노년세대'라 부르는데, 이들은 미국이 참전한 양차 유럽 전쟁과 한국 전쟁 등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경험한 세대들이다. 그 다음 1925년부터 1942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은 '침묵하는 중년' (Silent Midlifers)들로서 이들은 주로 동서 냉전 시대에 사회를 이끌어갔던 이들이다. 그 다음으로는 1943년부터 1960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인데, 이들은 1980년대 이후로 미국 사회의 주도 세력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이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X세대, 혹은 포스트모던 세대라고도 불리는 '13번째 젊은이들'(13ER Youths)는 1961년부터 1981년 사이에 태어난 이들인데, 미국에서 신세대 논쟁을 지핀 장본인들이다. 그 다음으로 부상하는 세대는 1982년 이후에 태어난 이들로서, '새천년 세대' (Millenial Generation)라 불린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연구가 후속으로 이어지고 있다(Howe, Strauss & Matson, 2000) X세대(더 익숙한 용어를 사용하겠다)의 개인주의적이고 비관적이며, 방임적인 성향과 달리, 새천년 세대들은 더욱 긍정적이고, 집단적이며, 전통을 존중하는 성향을 띤다는 것이 후

속 연구의 전반적인 결론이다(Howe, Strauss & Matson, 2000:4-8). 그러면 이러한 세대이해가 미국의 기독교 사역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자.

2. 떠오르는 교회의 출현

미국교회에서 최근 가장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 부상한 것은 '떠오르는 교회'(emerging churches)의 등장이다. 떠오르는 교회란 주로 미국의 X세대와 새천년 세대들로 구성된 신생 교회 운동인데, 여기에는 다양한 흐름들이 있다. 그러나 단적으로 몇 가지, 공통의 특성들을 보자면 '공동체의 중요성 강조,' '영적 훈련의 참여,' '고유한 기독교적 전통과 상징의 회복' 등을 들 수 있다(김선일, 2004: 194).⁶⁾ 이러한 떠오르는 교회의 독특한 양상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인데, 이는 세대 문화의 변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 되었음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교회의 주요한 트렌드로서 한국교회에서도 답습해왔던 '구도자 중심 예배'란 사실 세대 문화의 한 특성을 따르는 것이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겪으면서, 미국에서 가장 저항적이고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세대에 속한다. 이들은 기성제도를 최초로 거부한 세대이자, 성과 결혼에 대해서 매우 자유로운 관념을 공유했다. 이러한 이들에게 기성교회는 따분한 곳이었고, 자신들의 문화적 가치관과 상관성이 없는 장소로 여겨졌다. 또한 부모세대에게 처음으로 반기를 든 이들은 부모 세대의 전통적인 교회에 나가기를 거부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중년에 접어들면서 인생에 대한 재성찰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다시 교회를 끌어 들이기 위해 생겨난 전략이 바로 '구도자 중심 예배'라는 것이다. 기존의 따분하고 형식적인 예배라는 스타일을 과감하게 벗어나 편안하고 재미있는 공연식 예배가 선보였

6) 떠오르는 교회 현상에 대한 최근의 가장 포괄적인 연구는 Bolger & Gibbs (2005)를 참조하라.

고, 딱딱한 교리나 강해가 아닌 일상적 삶의 쟁점들, 즉 이혼과 재혼으로 가정의 불화를 많이 경험한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인생 주제 설교가 포함되었다. 이러한 식의 스타일 변화는 미국의 특정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을 교회로 다시 끌어들이는데 아주 적절한 전략이었다(김선일, 2004: 192-193).

그러나 문제는 베이비부머 세대 이후인 X세대와 새천년세대였다. 영상문화와 풍요 속에 자란 이들에게 구도자 중심 예배의 분위기는 그다지 신선함이 없었다. 게다가 이들은 부모 세대가 남겨놓은 부정적인 유산, 즉 가정의 와해와 전통의 단절, 그리고 이기적인 삶을 뛰어 넘는 그 무엇을 찾고자 했다. 이들에게 새롭게 다가서는 교회는 오히려 고객 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구도자 중심 예배가 아니라, 공동체적 진정한 기독교의 삶을 강조하고 신성한 의식이 살아있는 떠오르는 교회가 된 것이다. 기독교 교회는 더 이상 안주하는 장소가 아니라, 삶이자, 리듬이자, 공동체로 어필한 것이다(Bolger & Gibbs, 2005: 236). 가정의 와해로 인한 불안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교회의 공동체성 회복은 매우 상관성 있는 주제였으며, 개인주의적 단절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골몰 하던 젊은이들에게 고대적 영성의 회복은 매우 매력적인 영적 자원이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대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새로운 신앙운동을 일으키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것이다. 세대를 이해함은 그 세대를 분별하여 그 시대에 맞는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다. 관행적인 전통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정황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교회의 체질과 구조에 대한 혁신을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 이는 미국 교회에 나타난 구도자 중심 예배에서 떠오르는 교회로 이행되는 모습을 볼 때 확연히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세대 연구의 중요성은 교회의 갱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3. 영성의 역사적 변천

프린스턴 대학의 사회학자 로버트 워쓰나우(Robert Wuthnow)는 1950년대 이후 미국의 영성에 대한 관심을 역사적으로 추적한 바 있다. 그는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어떠한 상징과 기호를 통해 표현되었고, 어떠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형성되었는지를 조사했다. 각 세대 별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Wuthnow, 1998: 7). 전반적으로, 미국 사회의 영성에 대한 관심은 '정착형 영성'(dwelling spirituality)에서 '추구형 영성'(seeking spirituality)로 이동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정착형 영성이란 사람들이 신성한 장소에 영적인 근거를 두는 것인데, 이는 1950년대의 대표적인 영적 표현이었다. 고정적인 교회와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경험이었다(Wuthnow, 1998: 51). 1960년대에 이르면 사람들이 영성을 제도적 종교와 분리시켜 취급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Wuthnow, 1998: 72). 이러한 시점에서 영적인 갈망은 잠복되어 있다가, 형식적인 종교가 주는 것 그 이상을 사람들은 갈망하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영적인 실천에 대한 기교와 문서들이 풍성하게 나타난다. 사회가 갈수록 치열한 경쟁체제가 되면서, 사람들은 자기 내면을 다스리는 일에 주안점을 두게 된 까닭이다. 이러한 내면 추구 성향은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이어지면서, 사람들은 더욱 종교적 상징들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는 1990년대에 높은 관심을 보았던 천사, 혹은 신령한 세계에 대한 관심 증가와 맥을 같이 한다(Wuthnow, 1998: 123-142). 워쓰나우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영성의 맥락이 더 이상 장소지향적인 차원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으로 바뀌고 있고, 또한 영성을 추구하는 방식도 더욱 과정적이며 여정적인 것이 되어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워쓰나우는 실천 지향적 영성을 새로운 시대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현대사에서 갈등하는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각기 다른 영적인 경험과 갈망을 통합하고 중재하기 위한 대안이었다

((Wuthnow, 1998: 168-170). 실천지 향적 영성은 정착형 영성에서 구했던 엄숙함과 신성한 의식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추구형 영성에서 필요로 하는 영적인 실체의 경험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위쓰나우의 분석은 미국 사회의 세대 문화 이동에 기초를 두고 있음이 자명하다. 그러나 단지 최신 세대의 분석과 전략에 치우친 연구가 아니라, 세대 통합적 연구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는 세대 문제로 시련을 겪고 있는 한국 사회와 교회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준다. 또한 영적, 혹은 종교적 질문과 추구에 대한 세대별 변천사를 살펴보는 일은 일반적인 세대 연구에서 다루지 않는 중요한 영역이기에 기독교적 접근과 연구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4. 동시대 문화지형과 신학적 상관성

종교사회학자 텍스 샘플(Tex Sample)은 아놀드 미첼(Arnold 앞서 황상민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세대연구는 단지 세대 간의 문화를 차별화시키는 것 뿐 아니라 동시대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지형, 즉 공존하는 서로 다른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도 포함된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연구는 세대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별하는데 지대한 기여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학적 대응을 모색한 시도가 있었다. Mitchell)의 동시대 문화지형에 대한 연구를 인용하며 각 문화 집단 유형을 위한 신학적 접근과 교회 갱신 방안을 제시했다(Sample, 1990).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기준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샘플은 적어도 동일 세대 안에 문화좌파, 문화우파, 문화중도파라는 세 가지의 문화지형이 공존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지형은 문화좌파 집단이다. 이들은 개인주의와 경험주의적 가치관을 표방하며,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 사회의식이 높지만, 제도에 대한 불신이 있고 장기적 헌신을 꺼린다. 그러나 내구력 있는 정서적 관계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있는 집단이다. 샘플은 이들을 위한 신학적 접촉

점으로 '여정의 신학'(theology of journey)을 제시한다. 이들은 믿음을 과정으로 받아들이기 쉽고, 자기 내면의 발전과 성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획일적 틀보다는 동행을 통한 지도가 더욱 낫다는 것이다(Sample, 1990: 45). 문화좌파 유형의 사람들은 명상세계나 뉴에이지 운동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수도원적 전통과 명상적 영성을 소개하고, 교리 해설 보다는 영적 자서전이나 명상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고 샘플은 진단한다.

둘째 지형은 문화우파 집단인데, 이들은 경제적으로는 중하류층을 이루며 사회,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성향이다. 또한 도덕적 관습과 전통적 가치를 수호하려하며, 종래의 구술적 의사소통이 편한 이들이다. 샘플은 이들에 대해서는 민속신학(folk theology)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기독교를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여, 일상의 문제에 적실성 있는 기독교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상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을 일깨우는 것이 중요하며, 신앙은 인생에 대한 관점이 아닌 인생의 방식임을 보여줘야 한다고 샘플은 주장한다 (Sample, 1990:185).

셋째 지형은 문화 중도파 집단이다.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일 중독자이자, 자기만족 성향이 높은 고학력 커리어 계층이다. 보수적 정치성향을 갖고 있으며, 종교에 대해서는 매우 사적이며 중산층적인 입장에서 수용하려 한다. 신앙을 습관 개선과 리더십 개발의 차원으로 안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인생의 스트레스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또한 안고 있다. 이러한 이들에게 샘플이 주장하는 개념적 접촉점은 설명의 신학(explanatory theology)이다. 지시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을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이 기독교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샘플은 "좋은 설교는 불이 났다는 것을 알려주며 출구가 어디에 있는 지를 가리켜 주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피하라는 당위를 말 안 해도 사람들은 출구로 가고자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ample, 1990: 132). 이들에게는 내면의 불확실한 삶을 비추는 확실성 있는 진리를 제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샘플의 문화지형 연구는 특별히 황상민 등의 동 세대 안에 공존하는 라이프스타일 연구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비록 그 세세한 유형들은 다르지만, 상당히 적합한 기독교적 대응을 고찰할 수 있게 한다. 황상민 등이 제시한 라이프스타일에 샘플의 신학적 접촉점을 적용하여 한국적 전망을 구상할 수 있다.

첫째로, 물질적 신분전형은 미국의 문화 우파 내지는 중도파와 유사하다. 이들은 역사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삶의 본질적인 문제와 직접 연관된 진리임을 제시하는 일상의 신학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삶의 모든 일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전달해줄 필요가 있으며, 자기 생활의 개선으로서 종교에 귀의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개인주의적 보보스형은 문화좌파와 유사성이 있다. 이는 일정한 교육수준을 갖춘 신세대에게서 잘 나타난다. 한국은 근대화 이후, 신도시 개발과 수도권 팽창으로 인해 정착형 삶보다는 유목민적 삶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여행의 자유화, 모바일산업 등으로 인해 매우 유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기독교가 순례이자, 모험임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고정적인 양육 체계나 전통적인 교리학습 보다는 자기 삶의 직접적 주제와 연관된 탐구를 하기를 좋아할 것이다. 만일 탈위기 인성세대가 불안의 세대로 접어들면 이러한 여정의 신학은 더욱 더 필요해질지 모른다.

셋째로, 현실 동조형은 한국인에게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습성인데 어느 세대나 일정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미국의 문화중도파와 유사하다. 신세대에게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사회-경제적 불안이 점증하면 함께 늘어날 수 있는 그룹이다. 이는 우유부단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은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세계관적 신학이 필요한데, 이는 삶의 뜻대와 가치를 제공해주는 설명의 신학이다.

넷째 유형은 공동체적 개방형인데, 한국에 독특하며 전통과 현대가 잘 조합된 라이프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공동체적 개방형은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친교 모임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단순한 친교가 아니라, 이

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매력적 거대담론이 있어야 한다. 자신들이 봉사하고 참여함으로써 믿음을 배우고 영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룹이다. 따라서 이들은 교회의 세상 속 사명을 강조하는 선교적 교회론과 공동체적 신학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로, 전통적 보수형인데, 이는 주로 장년, 노년층에게서 압도적으로 나타나지만 젊은 세대에도 소수가 있다. 미국의 문화우파와 일정부분 비슷하다. 이들은 매우 보수적이긴 하지만, 공익과 사회도덕에 대한 헌신이 분명하다. 특히 현대 한국사회를 인도할 도덕적 권위구조가 사라지고, 모든 세대를 아우를 습속이 부재한 상황에 대한 염려가 많은 유형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봉사의 신학, 혹은 기독교의 도덕성이 설득에 유용할 것이다.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들에게 더욱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논문을 마무리하면서, 기독교적 세대 연구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기독교적 세대 연구와 그 적용의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몇 가지 제안과 전망을 나누려는 것이다.

첫째,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세대 연구는 학제 간 통합적 연구가 되어야 한다. 이미 일반학계에서도 세대에 대한 연구는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등에서 전개되고 있다. 세대현상이라는 복잡하기 때문에, 다양한 학문의 안목이 동원되어야 한다. 사회의 표면적 현상과 변동을 기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회 구성원들의 내적 역동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또한 이를 좀 더 거시적인 맥락에서 문화적 가치의 변화를 살펴보는 인류학적 연구도 가세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신학적, 교회론적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세대 연구는 교회의 사역과 담론 형성에 중

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본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적 관점의 세대 연구는 수혜적 입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반적인,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관한 기독교적 세대 연구가 별도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일반학계에서 생산되는 연구에 동참하고, 그로부터 중요한 연구결과들을 적절하게 접수하는 것도 불필요한 시간과 수고를 줄 일 수 있을 것이다. 일반은총론에 입각하여, 애굽의 보화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출12:35-36).

셋째,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대간의 영적, 종교적 상황에 대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현재 기독교계에서 진행되는 각종 조사들은 대체로 표면적인 현상과 통계에 그치고 있다. 또한 일반 연구기관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와 영적 세계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안 나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적 관점의 세대 연구는 사람들의 종교적, 정신적, 영적 제 경험들에 대한 고찰을 시도해볼만 한다. 각 세대에 따라 영적 가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종교에 대한 이해와 기대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기독교적 관점의 세대 연구는 비교 문화적 안목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의 예를 도식적으로 적용하는 자세는 미숙하지만, 타산지석으로 삼을 교훈들은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특히, 우리보다 앞서 사회변동의 경험을 하였으며 세대적 갈등을 경험해 온 미국의 경우 그들의 자료들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사회와 교회에서 일어날 현상들을 미리 진단하고 예방 및 대처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줄 것이다.

다섯째, 기독교적 관점의 세대 연구는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세대 갈등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희생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며 통합적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사회의 문제는 세대 차이뿐 아니라, 규범적 도덕성과 공동체적 이상을 보여줄 권위가 부재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교회로 하여금 이 시대에 부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임을 일깨워준다. 기독교의 학제 간 세대

연구는 세대 차이와 갈등을 인지하는 유형들에 대한 단순한 기술형 (descriptive) 작업이 아니라,⁷⁾ 사람들이 처한 실제적 삶과 상관적 (correlative)이어야 하며,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대안을 주는 처방적 (prescriptive)이고 선교적(missional) 연구라는 소임을 끌어안을 때 그 진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준만 (1997). 『고독한 대중』. 서울: 개마고원.
- 김선일 (2004). “떠오르는 교회 운동’ 떠오르다”. 『복회와 신학』, 2004년 4월호, 192-195.
- 박재홍 (2005). 『한국의 세대문제』. 파주: 나남신서.
- 송호근 (2003).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세대, 그 갈등과 조화의 미학』.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송호근 (2005).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파주: 북21.
- 이명진 (2005). 『한국 2030 신세대의 의식과 사회정체성』.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한경구 (2000). “위기의 인성과 21세기 한국사회”. 『열린지성』, 8호, 134-149.
- 한경구 (2005). “아름답고 슬기롭고 너그러운 나라”. 『한국의 국가전략2020』. 성남: 세종연구소, 171-199.
- 황상민 (2002). “한국사회의 세대집단에 대한 심리학적 탐색: 전이적 공존 관점을 통한 대학생 집단의 세대 이미지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6(3), 75-93.
-
- 7) 박재홍은 세대 차이에 대한 인지유형을 1) 취사선택형, 2) 청춘예찬형, 3) 전통고수형, 4) 현실수용형, 5) 현실순응형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다. 1)과 2)는 20대들이 주로 취하는 입장이며, 3), 4), 5)는 5-60대에게서 두드러진 유형이다(박재홍, 2005:174-182). 40대는 중간자 입장에서 중재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인지유형들에 대한 신학적 판단 작업 또한 기독교적 세대 연구의 몫이라 볼 수 있다.

- 황상민 (2003), "세대집단의 가치로 구분된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그에 따른 권위주의 성향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2), 17-33.
- 황상민 (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 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 Bolger, R. & Eddie Gibbs (2005), *Emerging Churches: Creating Community in Postmodern Cultures*, Grand Rapids: Baker Academics.
- Howe, N., William Strauss & R. J. Matson (2000), *Millenials Rising: The Next Great Generation*, New York: Vintage.
- Sample, T. (1990), *U.S. Lifestyles and Mainline Churches: A Key to Reaching People in the 90's*,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 Strauss, W. & Neil Howe(1991), *Generations: The History of America's Future 1584 to 2069*, New York: William Morrow and Company.
- Wuthnow, R. (1998), *After Heaven: Spirituality in America Since the 1950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Abstract

Recent Studies on Generations in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for Christian Study

Sun il Kim*

Recently, several important studies of generational differences in Korea have been conducted that have generated some significant results. Addressing the generational conflict in Korean society may be an urgent task for Christian intellectuals to take into account. This study describes the current state of generational studies in Korea and explore the possibility of Christian engagement with such academic endeavors for the purpose of exercising Christian leadership within the larger society and for discovering missional contact points within different generations. Finally, this study calls for interdisciplinary efforts in setting an agenda for Christian generational studies in a Korean context by illuminating cases of generational studies in America and their application to Christian churches.

**Key Words: generation, lifestyle, culture, evangelism,
Korean society**

* Director of Campus Ministry Research Institute